

현장탐방

임자도 존화양이 바위글씨를 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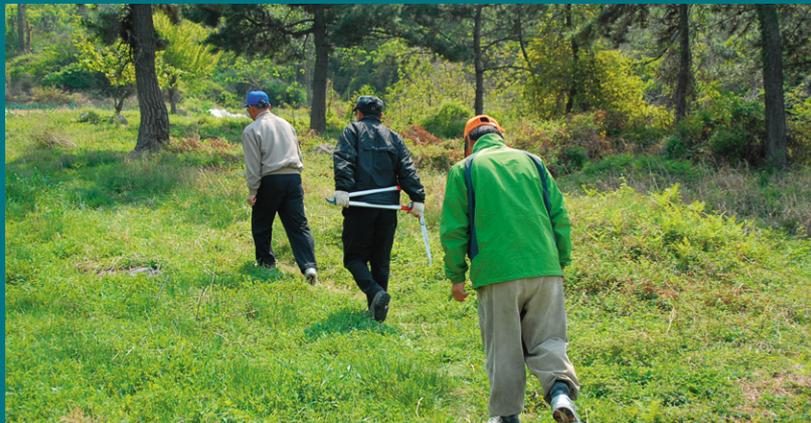
[글·사진 - 최성환(신안문화원 국장)]

임자도의 숨어있는 문화유산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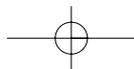
임자도 튼립축제가 한창이던 2008년 4월 25일, 튼립축제 현장 분위기를 사진에 담아두기 위해 임자도에 갔다가 임자도에 거주하는 문화원 회원들과 잠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이흑암리 화산마을 뒷산 어디에 새겨져 있다는 바위글씨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데, 아직 가보지를 못했다는 말을 하게 되었다. 임자면에서 향토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박경구 이사(신안문화원 임원)는 “말 나온 김에 한번 찾아가 볼까”하고 맛장구를 쳤다. 필자는 “여름이 오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한데, 누구 길을 잘 아는 사람있을까요?”하고 되물었고, 박경구 이사는 갑자기 휴대전화를 들고 몇 사람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

“길을 잘 아는 분이 있다고 하니, 한번 가보세”

그렇게 해서 화산마을의 바위 글씨를 찾아 화산마을로 출발했다. 마을 입구에는 화산마을에 살고 있



▲임자도 회원들과 길을 나서다





▲ 화산단 풍경

는 박석봉(이제는 고인이 되셨다), 박병철 두 문화원 회원이 나와 있었다. 유적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접 보지 못해 찻찻해 하던 중이었는데 좋은 기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주민들이 혼자는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해서 확인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왠지 부담이 느껴지기도 했다. 문화유적을 찾아다니다 산길을 헤매본 경험이 많아서, 준비를 하지 않고 갔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걱정이 되어서였다. 너무나 갑자기 산행을 하게 되어 복장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길을 잘 알고 계신다는 박석봉 어르신께 물었더니, 어릴 적부터 자주 가던 곳이라 금방 찾을 수 있다고 자신 있어 하셨다. 그렇게 해서 급조된 네 사람의 특별조사팀은 유적을 찾아 오르기 시작했다. 일행 중에 박병철 회원이 톱과 가위를 가지고 왔는데, 정말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1916년 화산마을 화산단 조성

먼저 마을 뒤에 조성된 화산단에 도착했다. 화산단은 임자면 이흑암리 화산마을에 자리하고 있다. 섬사람들은 인근 섬에 유학자가 유배 오면 근처에 거주하는 섬 주민들이 학자가 유배 온 섬으로 찾아가 학문을 배우기를 청했는데, 화산단은 그러한 섬 문화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유적이다. 조선말기 지도에 김평묵이 유배오자 임자도 주민들이 지도까지 찾아가 학문을 배웠고, 그 사상적 스승들을 기념하기 위해 이곳에 ‘화산단’을 세웠다. 1916년 유림들이 사재(私財)를 출연하여 단(壇)을 세워 이항로(李恒老)·기정진(奇正鎭)·김평묵(金平默) 등을 배향하였고, 1961년에 임자도 유림인 임행재(任行宰)·박종현(朴宗鉉)·이학재(李鶴在) 등을 추가로 배향하여 현재 6위가 모셔져 있다.



▲ 너무 변해버린 모습에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 톱으로 가시덩쿨을 잘라내는 박경구 이사



우리가 찾기로 한 바위유적은 이 화산단에 모셔진 인물 중 한 사람인 박종현 선생이 조성한 것이다. 아직 여름이 오려면 멀었지만, 산길은 벌써 수풀로 우거져 있었다. 등산객의 발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서 그런지 조그만 오솔길조차 보이지 않았다. 산을 오를수록 허리를 펴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사라졌다.

자신이 어릴 때부터 놀던 곳이라며,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던 동네 어른들도 막상 나무도 변해버린 길을 보자 당황해 하기 시작했다. 어찌 느낌이 좋지 않아, "어르신 혹시 여기 와본지 꽤 오래 되었나요" 하고, 묻자 "18년 만이여"하고 답하셨다.

4시간의 사투 끝에 발견한 향토유적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고, '찾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회의감도 들었다. 가시덩쿨에 살을 찢기면서 산속을 헤매고 다닌지 3시간여가 흘렀을 때, 이제 그만 포기하고 내려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때 박석봉 어른신이 "죽기 전에 꼭 한번은 여기 다시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양 왔으니까 꼭 찾아보세"하며, 일

행들을 독려하였다. 그 한마디에 오늘 끝장을 보고 내려가자는 의기투합을 하고 다시 힘을 내었다. 다행히 톱을 가져와서 이곳 저곳 길을 만들어 가며, 글씨가 새겨진 바위를 찾아 다녔다. 저기 어디인것 같은데, 바위 처럼 생긴 것은 나타날 줄 몰랐다. 또 다시 한 시간의 시간이 흘렀고, 바위가 감추어져 있을 것 같은 큰 나무 넝쿨이 눈에 들어왔다.

조심스레 바위 꼭대기에 올라선 박병철 회원이 넝쿨들을 하나씩 제거하자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다. 드디어 찾았다. 장장 네 시간의 사투 끝에 발견한 것이었다. 경사진 곳에 있어 나무 넝쿨을 벗겨내는 것도 쉽지 않았다. 새겨진 글씨는 "존화양이(尊華攘夷)" 네 글자였다.

최익현이 흑산도에 유배와서 "기봉강산 홍무일월(箕封江山 洪武日月)"이라는 글자를 천촌마을 암벽에 새긴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임자도의 마을 선비였던 박종현 선생이 10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한일병합이 이루어지자 이를 한탄하여 마을 뒷산의 바위에 이 네 글자를 새긴 것이다. 일본에 대한 민족적 자부심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존화양이 바위글씨

비록 국가적인 문화재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숨겨진 향토문화유산을 발견한 기분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힘은 들었지만 기분 좋은 하루가 되었다. 다만, 유배인이었던 최익현 선생이 새겨 놓은 바위글씨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문화유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순수 임자도 사람 박종현 선생이 새겨 놓은 바위글씨는 찾는 이가 없이 감춰져 버린 현실이 아쉽게 느껴졌다. 주민들은 이 바위에 글씨를 새겼을 때는 산에 나무가 거의 없어서 마을에서 산위의 이 글씨가 보였다고 전하고 있다.

향토유적을 찾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공감하고 힘든 탐방길을 함께 해준 임자도의 문화원 회원들(박경구, 박석봉, 박병철)께 지면을 통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특히 박석봉 회원은 불의의 사고로 지금은 고인이 되었다. 명복을 빌면서 이글을 하늘에 계신 박석봉 회원께 바친다.



바위글씨를 찾은후 기념사진

“유배인이 새겨놓은 유적은 유명한 문화재가 되는데, 정작 순수 임자도 선비가 새겨 놓은 유적은 존재감조차 없는 것이 아쉬웠다.”